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Focusing o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현숙**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김희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송식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Pusan National Univ.

Researcher: Kim, Hyun-Suk

Dept. of Sociology, Pusan National Univ.

Professor: Kim, Hee-Jae

Dep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

Professor: Choi, Song-Sik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migration females'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especiall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tested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411-J01101)

** 주저자: 김현숙 (illsuk94@hanmail.net)

*** 교신저자: 김희재 (khjjh@pusan.ac.kr)

by setti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acculturative stress as a prediction variable, their marital adjustment as an outcome variable and their ego-resilience as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The sample consisted of 172 marriage migration females from Busan. I analyzed the data using correlation analysis in order to discove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ose variables among acculturative stress, ego-resilience and marital adjustment. I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for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ve stress, ego-resilience and marital adjustment and for investiga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I also used multiple group analysis and two way ANOVA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proved that ego-resilience was exerted as a mediating variable, because acculturative stress appeared to affect marital adjustment in relation to ego-resilience. Therefore, marital adjustment was evident when ego-resilience was low. Second, it was proved that ego-resilience was exerted as a moderating variable, because those with low ego-resilience experienced high acculturative stress and low marital adjustment, and those with high ego-resilience experienced low acculturative stress and high marital adjustment. Such findings point ou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personal characteristics, like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Key Words :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부부 적응(marital adjustment),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I. 서론

결혼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으로 결혼과정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내국인 부부보다 부부 적응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 총 이혼건수는 2004년 138,932 건에서 2008년 116,535건으로 감소하는 반면,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300건에서 11,255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것은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에 일반 부부 보다 더 심각한 긴장의 경험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결혼 부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국제결혼 부부가 내국인 부부보다 결혼의 안정성이

매우 낮음을 지적한다. 연령, 학력 등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김두섭, 이명진, 2007), 단기간 결혼 성립으로 인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족(신경희, 2004; 김현숙, 2007) 및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홍달아기, 채옥희, 2007) 등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서로 다른 가족구조와 문화는 결혼생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만 가중되는 가사 일은 부부 관계를 불만스럽게 한다(이혜경, 2005;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이상과 같이 국제결혼 부부는 내국인 부부와 다른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언어, 관습, 가치관 등 문화적 차이는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안한 관계나 상황은 이들 부부가 많은 스트레스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가족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김석란, 2008; 김오남, 2006).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나 소외감, 높은 신체적 증상, 정체감 혼란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저해한다(고은주, 2009; 권구영, 박근우, 2007).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최명선, 곽민정, 2008). 김오남(2006)은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 요인 중 문화 요인이 가장 중요하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국제결혼 부부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따라서 이질적인 문화가 초래하는 충돌과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제결혼 부부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탐구한 것(양옥경, 2009),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탐구한 것(김오남, 2006) 등 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국제결혼 부부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다룬 것이 많고, 이들 부부가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 적응의 각 차원을 구별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많은 국제결혼 부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국제결혼 부부가 가족붕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것을 조정해 가는 방법에 있다. 즉 국제결혼

부부의 불안정성은 그들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처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최근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성격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이들의 관계를 조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은희, 2009).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자신감도 높아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직된 행동을 보일 수 있다(Block & Kremen, 1996)고 한다. 또한 자아 탄력적인 사람은 낯설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고 충동성을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Klohnen, 1996). 즉,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국제결혼 부부는 내국인 부부와 달리 언어, 관습 등 문화적 차이를 안고 출발한다. 또한 내국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에게 놓여 진 과중한 상황은 이들 부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반응이 그들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생활 시작에서부터 누적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제결혼 부부는 긴장과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부부 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결과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겪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자아증진 프로그램 및 상담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부 적응

부부 적응은 결혼의 성공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써(Burgess & Locke, 1960), 결혼에 이른 부부의 적응 방식과 정도는 결혼생활의 성공과 개인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제결혼과 같은 이문화간 결혼에서 부부 적응의 문제는 안정적인 결혼생활의 유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주사회에서의 통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부부 적응에 대한 연구는 결혼과 가족의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이다. 일찍이 Locke와 Wallace(1959; 251)는 부부 적응을 “주어진 시간에 남편과 아내 각자의 만족과 일치”로, LeMasters(1957; 229)는 “적응을 위한 능력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Hoult(1969; 192)는 “결혼의 행복 혹은 성공과 관련된 것으로 믿어지는, 갈등이나 공유된 행동의 양과 같은 복합적 요소들”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이전까지 부부 적응은 주로 행복, 만족, 안정, 일치, 동료감, 조화 등과 유사한 개념이었으며, 결혼 상태에 대한 질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결혼적응에 대한 개념은 부부 양자 간의 관계와 질적 상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Dyer(1983), Spanier(1976)는 부부 적응을 나쁜 적응에서 좋은 적응에 이르기 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Gurman(1975)은 부부 상호간의 경험의 반영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 적

응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은 부부 적응이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인구학적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Glenn, 1990). 이상과 같은 부부 적응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부부 적응은 어느 한쪽의 적응이 아니라 부부 양자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결혼생활의 여러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부부 적응을 정의하였다.

한편, 부부 적응의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일은 부부 적응을 평가하고 또한 부적응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Haynes, Follingstad & Sullivan, 1979).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결혼적응의 개념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하위영역이나 구성요인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가족과 결혼 연구에서 다루어진 부부 적응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urgess와 Locke(1960; 260)는 결혼생활에서 무엇보다 부부의 조화로운 관계, 공동의 관심 및 활동, 동의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Bowerman(1964; 124)는 부부 적응을 특정한 결혼상황이나 상호작용과 관련된 배우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적응해야 할 영역으로 가족 중심적 문제, 개인 중심적 문제, 그리고 가정 밖에서의 활동으로 분류한 바 있다. Spanier(1976)는 결혼생활에서 겪는 불일치로 인한 곤란, 부부 사이의 긴장과 개인적 불안, 결혼 만족, 부부 간의 응집,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 등으로 정의하였다. Wells(1984)는 결혼생활에서 드러나는 부부 간의 차이점에 대해 상호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 개인의 인성을 결혼생활이나 성인생활에 적합하도록 조정해 나가는 사회화 과정의 한 부분, 결혼생활에서 요구되는 일상적 과업들을 학습해 가는 과정, 두 사람의 독자적 생활양식을 융합하는 과정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부 적응의 영역은 학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지만, 현재 부부 적응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Spanier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이다. 이 척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이슬람,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부부 관계를 탐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Ben & Ivey, 2000; Haque & Davenport, 2009). 그리고 우리나라의 결혼과 가족 연구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어 온 척도이다. 하지만 Spanier의 DAS는 부부 중심의 서구사회에 적합한 척도로, 우리나라처럼 결혼생활에 다른 가족 구성원의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부부 적응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민식, 김종술, 1996). 이후 이경성과 한덕웅(2003)은 Spanier의 부부 적응에 기반 하여 부부 적응 검사를 개발하였고, 이 검사는 결혼 만족과 배우자 만족, 이혼 의도, 친밀감, 상호 소통, 성적 만족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결혼 만족과 이혼 의도를 고려한 이경성과 한덕웅의 부부적응척도(2003)를 사용하였다. 부부 적응의 하위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만족과 배우자 만족은 결혼 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 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정의된다(이경성 외, 2001; 684). 행복한 결혼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며, 가족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전조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 내의 결혼 만족은 매우 중요하다(Nielsen, 2002). 둘째, 이혼 의도는 이혼이나 별거를 원하고,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시도로 정의된다(이경성 외, 2001; 684). 즉, 사람들은 이익을 내는 관계에 만족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계를 해체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보상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관계 이외의 대안이 없거나 혹은 관계를 해체하는데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이다(전혜성, 2007; 37). 셋째, 친밀성은 배우자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배우자의 행복을 기원하며, 소중히 여기는 수준으로(이경성 외, 2001; 684), 애정, 이타심, 즐거움, 만족, 개방성, 존중, 결속력, 혼신 등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Walker & Thompson, 1983). 넷째, 상호소통은 배우자와 의사소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수준으로(이경성 외, 2001; 684-685), 부부 간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경우 결혼생활이 불행하게 되고, 이것은 이혼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Scott, Howard, Michelle, & Leber, 1995). 다섯째, 성적만족은 부부간의 성적 관심, 애정 표현 및 성관계에 대한 만족으로(이경성 외, 2001; 685),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부의 성생활을 활력 있게 유지하는 부부들은 그렇지 못한 부부들에 비하여 성에 대한 높은 욕구를 표현하고 성관계의 적응과 조화에 노력을 보인다(Nielsen, 2002).

2.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

이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접하면서 신체적,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다(Berry, 2005; 18). 이 과정에서 개인은 두 가지 행동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특성에 따른 모국문화유지수준에 관한 행동변화로, 이주한 사회가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주자가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Berry(2005)는 이 과정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란

과 관련이 있으며, 문제가 되는 이상한 행동적 반응을 포함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accellurative stress)이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접촉할 때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고통과 역기능으로, 우울, 분노, 소외감, 주변화 된 느낌이나 정체성 혼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 위기를 가져온다고 하였다(Karen & Louk, 1996; 131). 국제결혼 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을 다룬 정기선과 한지은의 연구(2009; 110)에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보다 우울증후군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권구영 외(2007)는 이주자들이 만성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도 고립된 환경 속에서 이를 적절히 해소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2009)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결혼만족, 우울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낮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최명선 외(2008)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가 관련이 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성격,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의 취약성과 관련해서 다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적응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이들이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다. 홍기혜(2000)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의

출신국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거나 속이도록 강요받거나 또는 스스로 출신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정체성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미령(2005)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과거 모국에서 수행하였던 역할이 상실되고 새로운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역할전환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대표적인 역할전환은 결혼으로 인한 아내나 며느리, 어머니 역할 획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한국사회는 여성의 가정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부부 부적응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박종삼(1983)은 한미 부부간의 가치관 차이를 언급하면서, 서로의 문화의 맥락을 알지 못하면 내면세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양선희(2004)는 기후, 음식, 관혼상제 등 풍습과 문화가 다른데서 오는 혼란으로 부부갈등이 생활전반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근 홍미기(2009)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 적응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오남(2006)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며, 부부 갈등의 여러 요인 중 문화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부부 적응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하여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의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집중함으로써 부부 적응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

들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 적응의 각 차원을 구별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아 탄력성과 부부 적응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단순실태연구(강유진, 1999;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생활정착과정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연구(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김이선 외, 2006; 한건수, 2006),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박재규, 2005; 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박지혜, 이승애, 이은아, 이지혜, 2007) 등 결혼생활에서 갈등이나 부적응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왔었다. 이러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나 그 가족이 상호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을 피해자화 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혼이 국가 간 불균형 발전이란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지만(설동훈 외, 2005), 그럼에도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결정한 행위자의 의지의 결과이다(Shaeffer-Grabiel, 2003).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나 그 가족은 생활 세계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행위자’로 살고 있고 자신의 삶에 ‘주관적 의식과 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이나 그 가족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긍정적, 적응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을 이해하고 개입하려는 강점관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의 중심에 있는 개념 중의 하나가 탄력성(resilience) 개념이다.

탄력성(resilience)이란 탄성, 회복력 등을 뜻하는 말로서,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Froma Walsh; 1998)을 의미한다. Block & Block(1980)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 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탄력성과 구분하여 자아 탄력성(ego-resilience)라고 하였다. Block & Block(1980)에 의하면 자아 탄력적인 사람은 불안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체계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 맥락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의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Froma Walsh, 1998). 따라서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경험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Ann, Keith, Glenn, Jelena, Jeffrey & Auke, 2004; 유선자, 2009).

그동안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는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정의하고 탄력성의 발현을 돋거나 저해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요인-중심적 연구(factor-focused approach)와 다른 하나는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정의하고 탄력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개인의 차이를 검토하는 인물-중심적 연구(person-focused approach)이다(Masten, 2001). 인물 중심의 연구는 적응유연한 사람들의 특성을 밝혀내고, 이를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보호요소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4; 394). 반면 요인 중심의 연구는 다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위험수준, 적응수준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변별적인 경로를 밝힘으로써 위험요소의 부정요소들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개입에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 중심 연구의 관점에서 그동안 잠재적인 보호요

소로 밝혀진 자아탄력성을 매개요소로 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동안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과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며, 조절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유성경 외(2004)는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 등 개인의 기질적인 부분과 인지적 역량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박유숙(2001)은 남편의 폭력 상황에 처한 아내의 정신 병리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충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유은애(2008)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이나 불안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최근 이은희(2009)는 탄력모델을 적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후 가족과의 생활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생활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이들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되고 장기화되어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상황에 맞고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전략을 동원하

기 때문에, 내외적 위협에 훨씬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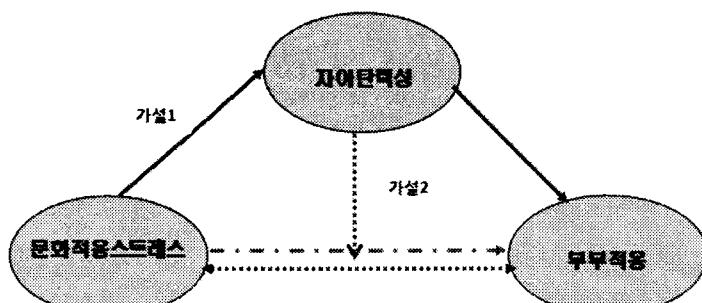
탄력성은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요인이다. 결혼이주여성은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고위험집단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다. 결혼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결혼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결혼생활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탄력적인 행동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부부 적응 증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을 활용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기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림 1〉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서 <가설 1>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부부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가설 2>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이들 관계를 조절하는 경우이다.

가설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완전 매개될 것이다.

가설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가 달라지는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 측정도구

1)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란 자신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문화가치 안에서 다른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Berry,2005).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나 자신으로부터 기인되는 요인과 외부 반응으로부터 기인되는 요인, 이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게 되며,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정신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노하나, 2007).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승종(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승종이 사용한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고, 개인별 점수는 36점에서 최고 180점 사이에 분포한다. 이 척도는 ①지각된 차별감, ②향수병, ③지각된 적대감, ④두려움, ⑤문화충격, ⑥죄책감, ⑦기타 문화적응스트레스 등 일곱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하여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신뢰도는 지각된 차별감 $\alpha=.82$, 향수병 $\alpha=.62$, 지각된 적대감 $\alpha=.80$, 두려움 $\alpha=.67$, 문화충격 $\alpha=.70$, 죄책감 $\alpha=.62$, 기타문화적응스트레스(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alpha=.69$ 이며, 전체 신뢰도는 $\alpha=.93$ 이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Block(1961, 1978)에 의해 CAQ(California Adult Q-Sort)의 방법으로 평정된 것인데, Kohnen(1996)에 의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로 새로이 보완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박유숙(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유숙(2001)이 번안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긍정적 진술 15문항과 부정적 진술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과 ‘항상 그렇다’(5점)로 하여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PI를 요인분석(주성분분석, 베리맥스회전)하여 3개의 하위요인(활력성, 낙관성, 감정통제)으로 나누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alpha=.86$ 으로 나타났다.

3) 부부 적응

부부 적응이란 결혼이주여성 1인이 인지한 부부 적응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이경성과 한덕웅(2003)이 개발한 결혼적응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

출신국	중국=1, 중국 조선족=2, 일본=3, 베트남=4, 필리핀=5, 몽골=6, 태국=7, 러시아=8
연령	20-29세=1, 30-39세=2, 40-49세=3, 50-59세=4
학력	초등학교 졸=1, 중학교 졸=2, 고등학교 졸=3, 전문대학 졸=4, 대학 이상=5
결혼기간	0-5년=1, 6-10년=2, 11-15년=3, 16년 이상=4
가족형태	부부=1, 부부+자녀=2, 부부+(자녀)+(시부모)+(남편형제)=3, 부부+(자녀)+(친정부모)+(친정형제)=4
가구수입	100만원 미만=1, 101-150만원=2, 151-200만원=3, 201-250만원=4, 250만원 이상=5, 모름=6

부간 애정, 주변가족과의 관계, 자녀만족, 경제적 만족 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부 서로간의 적응에 초점을 두어 결혼만족(3문항) 배우자만족(4문항), 이혼의도(4문항), 부부간의 친밀성(8문항), 상호소통(5문항), 성적만족(4문항) 등의 하위척도만 사용하였다.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결혼만족 $\alpha=.82$, 이혼의도 $\alpha=.99$, 배우자에 대한 친밀성 $\alpha=.88$, 상호소통 $\alpha=.89$, 성적만족 $\alpha=.66$ 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alpha=.63$ 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검증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부부 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다민족국가에서 개인과 사회』 2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 자료(2008. 7)를 기초로 하여,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

주여성의 출신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확정하였다. 실제 표본은 부산지역 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지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팀, 복지관 등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발견하여 연쇄소개표집(chain referral sampling) 방식으로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조사는 각 국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중국 45명, 중국 조선족 26명, 일본 21명, 몽골 9명, 베트남 36명, 필리핀 10명, 태국 12명, 러시아 13명 등 총 172명의 결혼이주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5.0과 AMOS 7.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측정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부부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모델 적합도 지수는 χ^2 값, NFI

(표 1) 계속

변수		빈도(%)	변수		빈도(%)	변수		빈도(%)
결혼경로 (N=94)	친구소개	19(20.21)	가족형태 (N=171)		부부 부부+자녀 부부+(자녀)+(시부모)+(남편형제) 부부+(자녀)+(친정부모)+(친정형제)			32(18.71) 81(47.36) 52(30.40) 6(3.50)
	가족소개	8(8.51)						
	교회소개	19(20.21)						
	아는사람소개	22(23.40)						
	결혼중개업체	23(24.46)						
본인 직업 N=163	기타	3(3.19)						
	무직, 주부	113(69.32)	배우자 직업 (N=162)		무직	5(3.08)	가구 수입 (N=158)	100만원 미만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250만원 250만원 이상 모름
	자영업	4(2.45)			자영업	31(19.13)		
	기능원	-			기능원	48(29.44)		
	단순 노무	7(4.29)			단순 노무	28(17.28)		
	사무직	12(7.36)			사무직	24(14.81)		
	서비스직	19(11.65)			서비스직	12(7.40)		
	판매직	3(1.84)			판매직	5(3.08)		
	농업 등	1(0.61)			농업 등	3(1.18)		
	과학기술자	3(1.84)			과학 기술자	5(3.08)		
	기타	1(0.61)			기타	1(0.61)		

(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χ^2 값과 χ^2 차이값은 표집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

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인 TLI, RMSEA를 중심으로 모델 적합도를 고려하였다. NFI, CFI, TL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는 .05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합도가 적절한 모형, .10보다 작으면 보통 수준을 의미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출신국 (N=172)	중국	45(26.16)	학력 (N=157)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전문대학 졸 대학 이상	연령 (N=161)	50-59세 40-49세 30-39세 20-29세		6(3.72) 15(9.31) 70(43.47) 70(43.47)
	조선족	26(15.11)						
	일본	21(12.20)						
	베트남	36(20.93)						
	필리핀	10(5.81)						
결혼기간 (N=172)	몽골	9(5.23)						
	태국	12(6.97)						
	러시아	13(7.55)						
	0-5년	124(72.09)	결혼 형태 (N=163)	연애결혼 중매결혼	혼인력 (N=168)	초혼 이혼후 재혼 기타		146(86.90) 21(12.50) 1(0.59)
	6-10년	27(15.69)						
	11-15년	9(5.23)						
	16년 이상	12(6.97)						

한다(이학식, 임지훈, 2008). 마지막으로 자아 탄력성의 조절효과는 다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중국이 26.16% (45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 20.93% (36명), 중국 조선족 15.11%(26명), 일본 12.20% (21명), 러시아 7.55%(13명), 태국 6.97%(12명), 필리핀 5.81%(10명), 몽골 5.23%(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와 30대에 각각 43.47%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전체의 86.94%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고졸이 36.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학 졸업 28.02%, 중학교 졸업 21.01%, 초등학교 졸업 8.28%, 대학 졸업 5.73%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0-5년이 72.0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6-10년 15.69%, 16년 이상이 6.97%, 11-15년 5.2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78.52%는 중매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경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2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는 사람 소개 23.40%, 교회소개 20.21%, 친구소개 20.21%, 가족소개 8.51%, 기타 3.19% 순이었다. 그리고 혼인력을 살펴보면 초혼인 경우가 86.90%로 나타나 초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부부 혹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형태가 66.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부 혹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시부모 혹은 남편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경우 30.40%, 부부 혹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친정부모 혹은 친정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경우 3.50% 순이었다. 본 조

사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69.32%가 전업주부였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서비스직이 11.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무직 7.36%, 단순노무 4.29%, 자영업 2.45%, 과학기술자 1.84%, 농업 0.61% 순이었다. 배우자의 직업은 기능원이 29.44%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19.13%, 단순 노무 17.28%, 사무직 14.81%, 서비스직 7.40%, 판매직 3.08%, 과학 기술자 3.08%, 농업 등 1.18%, 기타 0.61% 순이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도 3.08%나 되었다. 가구 수입을 살펴보면, 151-200만원이 22.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1-150만원 18.35%, 250만원 이상 17.72%, 100만원 미만 13.29%, 201-250만원 12.02% 순이었고, 가구 수입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16.45%나 되었다.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하였다.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가 3을 넘는 변수가 나타나, 최종분석에서는 이 변수를 제외한 뒤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자아탄력성,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부 적응의 하위요인별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간의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감정통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항수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적응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이혼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수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N=172)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연령	1																	
결혼기간	.51**	1																
학력	.13	.05	1															
수입	-.09	-.07	-.05	1														
활력성	.01	.09	.12	.06	1													
낙관성	-.06	-.02	-.01	.12	.50**	1												
감정통제	-.12	-.10	-.10	-.03	.10	.25**	1											
향수병	.04	.04	-.05	.06	-.08	-.13	-.44**	1										
지각된 적대감	.05	.12	.01	.04	-.08	-.14	-.48**	.46**	1									
두려움	.05	.05	.06	.03	-.15	-.25**	-.43**	.51**	.65**	1								
문화충격	.02	.06	-.01	.11	-.09	-.19*	-.50**	.63**	.65**	.63**	1							
죄책감	-.00	.06	-.05	-.01	-.19*	-.29**	-.42**	.51**	.57**	.60**	.59**	1						
기타문화	.03	.09	.04	-.02	-.14	-.15*	-.44**	.61**	.73**	.66**	.76**	.66**	1					
결혼만족	-.13	-.13	-.06	.12	.04	.15	.55**	-.27**	-.48**	-.29**	-.46**	-.39**	-.44**	1				
친밀성	-.05	.02	.02	.20*	.20**	.19*	.35**	-.11	-.32**	-.15	-.23**	-.21**	-.22**	.61**	1			
상호소통	-.04	.02	.00	.15	.26**	.19*	.35**	-.09	-.23**	-.19*	-.23**	-.21**	-.22**	.60**	.78**	1		
이혼의도	-.04	-.06	-.03	.12	-.02	.08	.39**	-.19*	-.55**	-.34**	-.40**	-.36**	-.38**	.65**	.50**	.32**	1	
성적만족	.02	.03	.11	.07	.19*	.05	.26**	-.21**	-.17*	-.13	-.21**	-.14	-.22**	.43**	.63**	.75**	.21**	1
M.	3.26	2.49	4.02	3.52	3.22	3.63	3.84	2.96	2.30	2.27	2.46	2.04	2.51	4.02	3.80	3.42	4.04	3.23
S.D.	.78	.69	1.02	1.66	.67	.62	.63	.92	.90	1.09	.98	.99	.79	1.01	.93	1.05	.64	.95

* p<.05 **p<.01 ***p<.001.

우선 부부 적응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 적응의 하위변인 중 결혼만족과 이혼 의도는 감정통제와 정적 상관을, 배우자 만족은 낙관성과 감정통제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성과 상호소통은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만족은 활력성, 감정통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 적응의 각 하위변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만족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탄력성,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부부 적응의 관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t값	유의 확률
(Constant)	41.35		2.45	.02
연령	-.20	-.01	-.10	.92
결혼시기	2.12	.08	.94	.35
학력	.31	.02	.23	.82
가구수입	.82	.08	1.04	.30
활력성	2.53	.09	1.06	.29
낙관성	-.94	-.03	-.35	.72
감정통제	9.36	.35	3.80	.00
지각된 적대감	1.89	.10	1.00	.32
두려움	-4.97	-.24	-2.31	.02
문화충격	1.75	.11	.98	.33
죄책감	-1.53	-.09	-.71	.48
기타 문화적응스트레스	-4.26	-.24	-2.40	.02
R^2			.40	
수정된 R^2			.34	
F			6.36***	
Durbin-Watson			2.07	

*** p<.001

배우자 만족은 향수병을 제외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변인과 부적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성은 향수병과 두려움을 제외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변인과 부적상관을, 상호소통은 향수병을 제외하고 모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 변인과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의도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모두 변인과 부적상관을, 성적만족은 두려움, 죄책감을 제외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변인과 부적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자아탄력성,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부부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에서 제시하

는 것처럼 연령, 학력, 결혼기간, 가구수입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부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 중에서는 감정통제가 높을수록 부부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5$, $p<.001$), 문화적응스트레스 중에서는 두려움이 낮을수록 ($\beta=-.24$, $p<.05$), 기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beta=-.24$, $p<.05$) 부부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잠재 변수로 사용된 변수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틀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

〈표 4〉 전체 잠재요인 대상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t값	p값
문화적응스트레스	향수병	.85	.67	8.40 ***	
	지각된적대감	.96	.78	9.75 ***	
	두려움	1.18	.79	9.85 ***	
	문화충격	1.13	.84	10.45 ***	
자아탄력성	죄책감	1.00	.73		
	낙관성	.66	.52	5.10 ***	
	감정통제	1.00	.74		
부부적응	결혼민족	1.94	.90	11.70 ***	
	배우자민족	1.92	.93	12.03 ***	
	친밀성	1.37	.68	11.70 ***	
	이혼의도	1.00	.73	***	

*** p<.001

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측정모형을 확정하기에 앞서 개별 잠재변인의 측정도구를 평가하였다. 측정도구는 내적일관성 조사를 거친 후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는 항목만을 선정하고, 또한 측정도구의 수정을 위해 표준화 residuals의 절대값이 4보다 큰 항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는 지각된 차별감과 기타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제외되어,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만이 남게 되었다. 자아탄력성에서는 활력성이 제외되어 낙관성과 감정통제만이 남게 되었다. 부부 적응에서는 상호소통, 성적만족이 제외되어 결혼민족, 배우자민족, 친밀성, 이혼의도만이 남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개별 잠재요인의 측정모형 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전체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chi^2=98.30$, d.f.=41, p=.000, NFI=.91, CFI=.94, RMSEA=.09로 적절한 모델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방법

을 통하여 관찰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 $\lambda>.30$)을 확인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다음은 이러한 측정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구조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부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매개적 경로의 추가로 인해 문화적응스트레스로부터 부부 적응에 이르는 직접 경로가 통계적 의미를 상실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문화적응스트레스 →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 부부 적응으로 구성된 모형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 부부 적응 간의 직접관계를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문화적응스트레스 → 부부 적응의 직접관계를 추가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98.30$ NFI=.91, TLI=.91, CFI=.94, RMSEA=.09로 모형 적합도는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모형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 자아탄력성 ($\beta=-.71$, p<.001)

〈표 5〉 매개모형에서 변수간 관계 검증

(N=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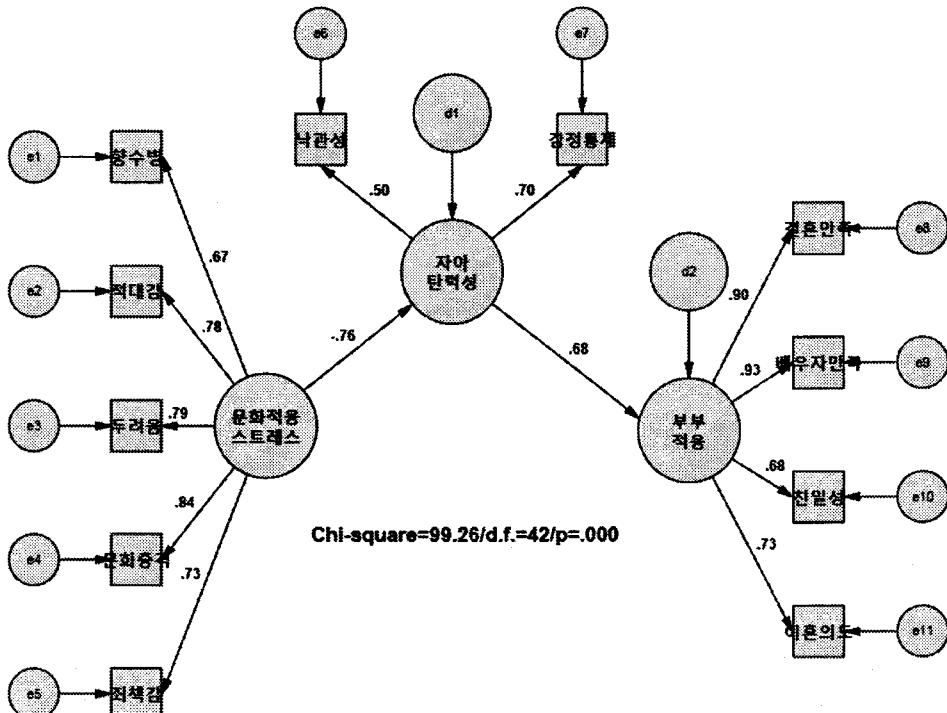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t값	p값
자아 탄력성	←	문화적응스트레스	-.33	.07	-.71	-4.66	***
부부 적응	←	문화적응스트레스	-.28	.24	-.19	-1.18	.24
부부 적응	←	자아 탄력성	1.55	.61	.49	2.54	.01

경로와, 자아탄력성 → 부부 적응($\beta=.49$, $p<.05$)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 → 부부 적응($\beta=-.19$)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 자아탄력성 → 부부 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구성하였다 <그림 2>. 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99.26$, NFI=.94, TLI=.91, CFI=.94로 상대적 적합도 지수가 높으며, 절대적 적합도 지수에서도 RMSEA=.0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 → 자아탄력성($\beta=-.76$, $p<.001$), 자아탄력성 → 부부 적응($\beta=.68$, $p<.001$)의 경로도 각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낮아지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부 적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문화적응스트레스→부부 적응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림 2〉 매개모형의 표준화 계수



〈표 6〉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적응에 대한 효과 분석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아탄력성 ← 문화적응스트레스	-.76	-.76	-
부부 적응 ← 문화적응스트레스	-.52	-	-.52
부부 적응 ← 자아 탄력성	.68	.68	-

<표 6>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부부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부부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간접효과=-.52).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76이고,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은 자아탄력성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68로 나타났다.

4.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잠재요인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아탄력성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잠재요인 간의 관계를 free로 한 프리모형과 잠재요인 간 관계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한 제약모형을 설정하여 두 번의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프리모형의 분석 결과 <표 7>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의 경로계수 값($\beta=-.51$, C.R.=4.50, $p<.001$)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 값($\beta=-.27$ C.R.=2.33, $p<.05$)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해당 경로계수가 크게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부부 적응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에 따라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지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프리모형과 제약모형에 대해 χ^2 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8>. χ^2 값의 차이 검증 결과, 프리모형은 $\chi^2=143.72$, d.f.=68, $p=.000$ 으로 나타났으며, 제약모형은 $\chi^2=149.59$, d.f.=69, $p=.000$ 으로 나타나, χ^2 값의 차이가 5.87로 자유도가 1 감소할 때 χ^2 값이 충분히 감소했기 때문에 ($\Delta\chi^2=5.87>\chi^2 .05(1)=3.84$), 제약모형보다 프리모형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1)조절효과의 방향성은 가설과 일치하였으며, (2)제약모

〈표 7〉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다집단 분석결과

(N=172)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C.R.	label
프리모델	자아탄력성 상	-.77	.17	-.51	-4.50***	
	자아탄력성 하	-.27	.12	-.27	-2.33*	
제약모델	자아탄력성 상	-.39	.09	-.46	-4.18***	a
	자아탄력성 하	-.39	.09	-.36	-4.18***	a

* $p<.05$ *** $p<.001$

〈표 8〉 프리모형과 제약모형의 χ^2 값의 차이

Model	NPAR	CMIN	D.F.	P	CMIN/D.F.
프리모형	62	143.72	68	.000	2.11
제약모형	61	149.59	69	.000	2.17
차이		5.87	1		

〈표 9〉 부부 적응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상, 하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하		자아탄력성 상	
	M(S.D.)	N	M(S.D.)	N
하	72.66(11.46)	24	77.56(8.75)	41
상	60.88(16.53)	78	75.75(11.15)	29

형보다 프리모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에 따라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9>.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 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부부 적응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9>에서 자아탄력성 ‘하’ 집단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 ‘하’ 집단과 ‘상’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11.78이었고, 자아탄력성 ‘상’ 집단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 ‘하’ 집단과 ‘상’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1.81로 나타나, 자아탄력성 ‘하’ 집단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부부 적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 ‘하’ 집단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평균 차이는 4.90이었고, 문화적응스트레스 ‘상’ 집단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14.87로 매우 높게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자아탄력성 집단 간의 부부 적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0〉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따른 부부 적응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소스	제III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9789.27(a)	3	3263.09	17.92	.000
절편	725959.50	1	725959.50	3985.57	.000
문화적응스트레스	1627.87	1	1627.87	8.94	.003
자아탄력성	3447.30	1	3447.30	18.93	.000
문화적응스트레스*자아탄력성	878.57	1	878.57	4.82	.029
오차	30600.70	168	182.15		
합계	859558.00	172			
수정된 합계	40389.98	171			

a R제곱 = .24 (수정된 R 제곱 = .23)

<표 10>는 부부 적응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상, 하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10>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8.94$, $p<.01$), 자아탄력성 역시 부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8.93$, $p<.001$).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이 부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4.82$, $p<.05$).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상호작용하여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할 때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완전 매개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부부 적응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응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성격 즉 자아탄력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대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부 적응의 수준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지면서(김오남, 2006; 양옥경 외, 2007). 그동안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대책이 논의되어 왔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선 외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실제로 가족, 사회 등 외적인 지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외적 지원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 개인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의해 완충되는 등 심리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조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소 중 낙관성과 감정통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보다 타당하고 정교화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부부 적응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낙관적으로 사고하고 감정통제를 하는 등 긍정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도한다면, 부부 적응을 높이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의 갈등, 정서적 어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의 실제적인 상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낙관적인 성향을 갖고, 감정통제를 할 수 있도록 재교육 한다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증진시켜 부부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20-30대 연령집단에 치중되었고,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의 집단이 많은 것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둘째, 본 연구방법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질문지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있다. 셋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 간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변인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만을 살펴보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첫째, 기존의 자아탄력성 개념이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성인 여성은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성인 여성은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

영역에서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실천적으로는 높은 자아탄력성을 지닌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상황에 훨씬 더 잘 대처하고 부부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회복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살펴볼 수 있고,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1)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8-81.
- 2) 고은주(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폭력,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건강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3)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4) 권구영, 박근우(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 187-219.
- 5) 김두섭, 이명진(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33-56.
- 6) 김미령(2005). 북한이탈 주민들이 인지한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자원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 95-123.
- 7)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3.

- 8) 김석란(2008). 한·일 국제결혼을 통해 본 문화적 갈등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35, 287-299.
- 9)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10)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결혼이 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한학문화*.
- 11) 김현숙(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청구 논문*.
- 12)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13) 박명혜(2009).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심리 사회적 요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쉼터 입소 여성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14) 박유숙(2001). 남편의 폭력이 아내의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5) 박재규(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 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농촌경제* 29(3), 67-84.
- 16) 박종삼(1983). 한·미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갈등의 임상적 고찰. *한국사회 복지학* 4, 1-15.
- 17) 박현진(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2005). 국제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19)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실태보고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실 자료집*.
- 21) 유선자(2009). 중년여성의 자아탄력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22)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23) 유은애(2008).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통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24) 이민식, 김종술(1996). 부부 적응 척도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29-140.
- 25) 이승종(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26) 이은희(2009).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결혼 이민자 여성의 적응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1), 73-94.
- 27) 이해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91-100.
- 28)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15-528.
- 29)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 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 학연구* 10(4), 143-161.
- 30) 전혜성(2007). 정신장애인 배우자 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31) 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박지혜, 이승애, 이은아, 이지혜(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 32) 정기선, 한지은(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33) 최명선, 곽민정(2008).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34) 추현화,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1.
- 35)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36)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37) 홍달아기, 채옥희(2007). 국제결혼 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733-744.
- 38) 홍미기(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39) Ann, S. M., Keith, B. B., Glenn I. R., Jelena O., Jeffrey, D. L., & Auke T.(2004). Resources and resilience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Continuity and chang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4), 1071-1094.
- 40) Ben. K. L., & David I.(2000). The assessment of marital adjustment with Chinese population: a study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2(4), 453-465.
- 41) Berry, J. W.(2005).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17-38 in Acculturation. edited by Kevin, M. C., Parmela, B. O., & Gerardo, M. Washington. D. C.: Decade of Behavior.
- 42) Block, J. H. & Block, H.(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43)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44) Bowerman, C. E.(1964). Prediction studies, In H. T. Christensen(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Chicago : Rand McNally.
- 45) Burgess, E. W. & Cottrell, L. S.(1939).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New York : Prentice Hall, 317-322.
- 46) Burgess, E. W. & H. J. Locke(1960).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2d edition. New York : American Book.
- 47) Bursby, D. M., Christensen, C., Crene, D. R., & Larson, J. H.(2007).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3), 289-308.
- 48) Dyer, D. E.(1983). *Courtship, marriage, and family: American style*. Homewood, IL : Dorsey Press.
- 49) Kohne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50) Froma, W.(1998). Strengthening family

-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양
옥경, 김미옥, 최명민(역)(2006). 가족과 레
질리언스. 서울 : 나남출판.
- 51) Glenn, N. D.(1990). Quantitative research in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18-31.
 - 52) Gurman, A. S.(1975). Evaluating the outcomes of couples groups. In A. S. Gurman and D. G. Rice(Eds.), *Couples in conflict* (192-206). New York : Jason Aronson.
 - 53) Haque, A. & Becky D.(2009). The assessment of marital adjustment with muslim population: A reliability study of the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test.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1, 160-168.
 - 54) Haynes, S. N., Follingstad, D. R. & Sullivan, J. C.(1979).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and inter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4), 789-791.
 - 55) Hoult, T. F.(1969). *The dictionary of modern society*. Totowa, NJ : Littlefield, Adams.
 - 56) Karen P. & Louk H.(1996). Personal adjustment to acculturative Transitions: The Turkish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1(2), 131-144.
 - 57) Karney, B. R., & Brabury, T. N.(1997). Neuroticism, marital interaction,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75-1092.
 - 58) Kirkpatrick, C. & John, C.(1951).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marital adjustment. *American sociology Review* 16(1), 81-86.
 - 59) Klone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60) LeMasters, E. E.(1957). *Modern courtship and marriage*. New York : Macmillan.
 - 61) Locke, H. J. & Wallace, K. M.(1959). Short marital adjustment and prediction tests: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1, 251-255.
 - 62) Nielsen, M. R.(2002). Are all marriage the same?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class couples. University of Chicago.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63) Masten, A. S.(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64) Scott M. S., Howard J. M., Michelle st. P., & Leber, B. D.(1995). Strengthening marriages and preventing divorce: new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Family Relations* 44(4), 392-401.
 - 65) Shaeffer, G. F.(2003). Cyber-brid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Transnational imaginaries, migration, and the intimate economy of marriage. Ph.D. Dissertation, Americ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nnesota.
 - 66) Spanier, G. 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ic.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15-28.
 - 67) Walker, A. J. & Thompson, L.(1983).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and contact among mothers and daugh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41-849.
 - 68) Wells, J.(1984). *Choices in Marriage & Family*. Jackson : Piedmont Press. Inc.

- 투고일 : 2010년 4월 1일
- 심사일 : 2010년 4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5월 24일